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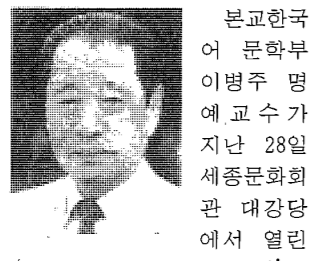
東大新聞

1997년(설기 2541년) 11월 3일(월요일) 제 1234 호 주간 / 1964.1.1 등록번호 다-10 / 발행인 송석구 / 편집인 김주만 / 정액 1000원 / 구독료 1000원 / 광고료 1000원 /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02)260-3491~2 FAX(02)279-1270 / 780-714 경북 경주시 석랑동 707(0561)770-2057

근조일인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은 한다 못하고 행할 수 없는 것은 빈말을 하지말라. 거짓을 꾸며서 성신(誠信)이 없는 것은 지해로운 자가 불리치고 버리는 것이다.
법규경 · 교학록 42절

이병주 명예교수 서울시 문화상 수상



본교한국어 문학부 이병주 명예교수가 지난 28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46회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상했다. 이병주 교수는 평소 한국고전 문학의 학문적 체계화에 기여해왔으며, 두부의 연구를 통해 한국 한문학 발전에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50여년동안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후진양성을 위한 모범을 보인 결과 이번 인문사회과학부에서 수상하게 되었다. 이병주 교수는 50년도 본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70년 동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동양한문학회를 맡고 있으며, 본교한국어문학부 명예교수로 재직중이다.

동악 '선거전' 본격 돌입

총학, 구준서·이미성 - 허창수·김준환 조 등록 ... 오는 7일 도서관앞 1차 유세
총여, 이경원·이가양조 단독 입후보 ... 졸준위 - 김기석군·동연 - 이영민군 당선

서울캠 제30대 총학생회 및 제14대 총여학회 정·부학생회장 후보자 등록이 지난 31일 이뤄진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가 일 예견된다. 29일부터 실시된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후보자 등록을 지난 31일에 마감한 결과, 총학생회 김후보로 구준서(전자4)·이미성(국교3)조와 을후보로 허창수(정외3)·김준환(건국3)조가 등록을 마쳤다.

또한 총여학생회에서는 이경원(철3)·이가양(인문학부2)조가 단독 입후보했으며 제30대 총여의장 선거는 후보자 비등록으로 인해 일단 무산됐다. 이와 관련 박병제 총대의장은 "총대의장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내년 3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후 총학생회·총여학생회 선거일정은 오는 4일 후보자 공보, 7일에 1차유세가 도서관앞에서 이뤄진다.

한편, 서울캠 졸준위 위원장 선거와 동아리연합회 정·부학생회장 선거가 지난 28.9일과 30일에 각각 실시됐다. 제10대 졸준위 위원장 선거에서는 을후보로 출마한 김기석(물리3)군이 갑후보 이정태(경영3)군을 누르고 57%의 지지율로 당선됐고 제14대 동아리 연합회 정·부학생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박영민(건국3)·한승복(공학계열2)조는 71.5%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93.2%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총대의 한 관계자는 "초반기 선거 분위기가 예년에 비해 침체된 감이 다소 있었는데, 총학생회장 경선과 함께 단체 학생회장 투표 등으로 인해 분위기가 해산될 것"이라고 선거 분위기를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송석구 총장은 "한·일 불교사의 재정립과 양국 간의 상호신뢰 및 친선 도모에 지대한 족적을 남긴 점을 높이 평가해 명예 철학박사학위를 수여한다"고 그 의미를 밝혔다.

행정고시 2차 5명합격 오는 5일 최종 발표

제 41회 행정고등고시 2차 시험에 본교 졸업생 5명이 합격했다. 이번 행정고시 2차 합격자는 △김승현(법88졸)=검찰사무 △박인규(행정91졸)=일반행정 △김정우(행정92졸)=일반행정 △이정순(회계92졸)=재경 △이창환(경영97졸)=보호관찰분야 등 총 5명이다. 한편, 행정고시 최종 합격자 발표는 오는 5일에 있을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경주캠퍼스의 경주시내 일대에서 학생·교직원 2천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등교육진흥을 위한 전국민 전선대회'가 열렸다. 사진은 녹야원에서 열린 결의대회 모습. 이해경 기자

경주캠 오늘부터 대중평 실시

경주캠퍼스는 오늘(3일)부터 내일(4일)까지 한국대학교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 실시하는 대학총학생회장선거(이하 대중평) 현지 실시 방문을 받는다. 이는 본교가 지난해 11월 예비평가 실행계획 수립이후 1년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9월 18일부로 대교협에 자체평가 연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평가일정에 따라 대교협의 종합평가위원회의 의해 현지 방문심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캠이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교육부의 지원을 받은 데 이어 올해 경주캠도 실시하게 된 대중평은 이번 실시 후 대교협 산하기구인 인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평가인정 여부 및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기획홍보과의 한 관계자는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연구위원

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협조가 뒤따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뒤 "한 번 인정되면 7년동안 유효기간을 가지

는 대중평에서 경주캠은 5백점 만점에 최대 4백40점까지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체평가 결과를 덧붙였다.

북 동포돕기 '사랑의 옷 보내기'

교수회(회장=김익기·사회학)와 직원노조(위원장=김정옥) 및 생활협동조합(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으로 구성된 본교 북한주민돕기 운동본부는 지난 10월 20일부터 오는 7일까지 '북한동포 사랑의 옷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수집된 물품은 오는 9일 한강시민공원에서 있을 '북한동포 사랑의 옷모으기 3차행사'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대학원총학생회도 지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북한동포 사랑의 옷모으기 운동을 벌여 지난 25일 장충단 공원에서 열린 '북한동포 겨울나기 사랑의 옷모으기 2차 행사'에서 전달했다.

교수회(회장=김익기·사회학)와 직원노조(위원장=김정옥) 및 생활협동조합(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으로 구성된 본교 북한주민돕기 운동본부는 지난 10월 20일부터 오는 7일까지 '북한동포 사랑의 옷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수집된 물품은 오는 9일 한강시민공원에서 있을 '북한동포 사랑의 옷모으기 3차행사'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대학원총학생회도 지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북한동포 사랑의 옷모으기 운동을 벌여 지난 25일 장충단 공원에서 열린 '북한동포 겨울나기 사랑의 옷모으기 2차 행사'에서 전달했다.

항해문화대탐사 보고회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뱃목 및 사진 전시

개교1백주년 기념본부(본부장=한보광·신학), 문과대 사학과, 한국탐험협회는 항해문화대탐사 성공기념으로 오는 10일 '탐사보고회 및 뱃목·사진전시회'를 개최한다. 탐사보고회는 오는 10일 오후 4시, 개교90주년 기념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총장 및 여러 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운명철 항해문화탐사대장의 탐사 결과 보고와 항해탐사 영상 시사회도 함께 실시된다. 뱃목·사진 전시회는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주간 개교90주년 기념문화관 앞 야외와 예술극장 1층로비에서 열린다. 전시물은 뱃목 1척과 사진 40점, 항해 개요 설명도, 해도 등이다. 항해문화대탐사는 작년과 금년 여름 본교 주최로 실시한 것으로 학술, 문화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영파를 출발하여 흑산도 경유 인천까지 도달했던 대나무 뱃목은 그 동안 용인 애버랜드에서 전시를 끝내고 앞으로 영구 보존할 곳을 찾는 중이다. 한편, 이날 탐사보고회 이후 뱃목탐사 성공 축하연에서는 뱃목탐원 관련 저서 '윤박사의 뱃목탐원'과 '한중문화교류와 남북해로'가 출간, 선보될 계획이다.

개교1백주년 기념본부(본부장=한보광·신학), 문과대 사학과, 한국탐험협회는 항해문화대탐사 성공기념으로 오는 10일 '탐사보고회 및 뱃목·사진전시회'를 개최한다. 탐사보고회는 오는 10일 오후 4시, 개교90주년 기념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총장 및 여러 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운명철 항해문화탐사대장의 탐사 결과 보고와 항해탐사 영상 시사회도 함께 실시된다. 뱃목·사진 전시회는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주간 개교90주년 기념문화관 앞 야외와 예술극장 1층로비에서 열린다. 전시물은 뱃목 1척과 사진 40점, 항해 개요 설명도, 해도 등이다. 항해문화대탐사는 작년과 금년 여름 본교 주최로 실시한 것으로 학술, 문화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영파를 출발하여 흑산도 경유 인천까지 도달했던 대나무 뱃목은 그 동안 용인 애버랜드에서 전시를 끝내고 앞으로 영구 보존할 곳을 찾는 중이다. 한편, 이날 탐사보고회 이후 뱃목탐사 성공 축하연에서는 뱃목탐원 관련 저서 '윤박사의 뱃목탐원'과 '한중문화교류와 남북해로'가 출간, 선보될 계획이다.

교직 복수전공·부전공 접수

사범대(학장=임영정·역사교육)는 '97학년도 교직복수전공 및 교직부전공 이수 신청서' 및 '97학기 교육실습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한다. **◇교직 복수전공** △신청자격='97학년도 2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사범대(사범계열) 학생(학번무관) △접수기간='97.11.10(월)~11.14(금) △접수처=사범대 교학과(경주캠퍼스) △이수가능학과=사범대(계열)의 학과만 가능 △이수학점=교직복수전공 하고자 하는 학과의 표시과목 관련 기본 이수여역별 상용과목을 포함한 전공 4학점 이상 **◇교직부전공** △신청자격='97학년도 2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자(학번무관)로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학

정 선발전 자 및(사범계열)학생 △접수기간='97.11.10(월)~11.14(금) △접수처=소속대학교 학과 △이수가능학과=사범대(계열)의 학과 및 교직과목 관련 기본 이수여역별 상용과목을 포함한 전공 2학점 이상 교육실습 신청자격은 '98년 8월 및 '99년 2월 졸업예정인 사범대 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7일까지 사범대 교학과에서 접수하며 실습 기간은 내년 4월6일부터 5월 4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 한편 사회교육실습 신청과 교원무자격시험 결정원서 접수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사범대 교학과에서 접수한다.

보리수 사경(寫經)

한 보 광 (신학과 교수) 사경(寫經)이란 불교경전을 베껴 쓰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의 경전을 베껴 쓰는 작업은 단순한 필사(筆寫)와는 다르다. 초기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한 때에는 경전의 유포를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되었으나 인쇄본이 나온 뒤에도 수행과 공덕을 쌓기 위해 널리 행해졌다. 먼저 수행의 방법으로는 고요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경전을 한자 한자 베껴 쓰므로 정성통일의 삼매경지에 들 수 있으며, 또한 경전에 담긴 참된 뜻을 깊이 이해하므로 마음 수양에도 크게 보탬이 되어 고상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앙적으로는 공덕을 쌓고 업장을 소멸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하기도 한다. 즉 대승불교에서는 개인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나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의 왕생극락을 발원하기도 하며, 또는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이 사경한 공덕을 회향기도 한다. 이는 경전을 서사(寫經)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것과 같으며, 제불보살님의 가르침도 한량없이 많다고 금강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에서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경하는 자세는 먼저 몸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발원을 세운 후 경전의 내용이 틀리지 않도록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 나간다. 단순히 서사하는 공덕도 크지만, 그 뜻을 이해하면서 사경한다면 더 의의가 있을 것이다. 깨끗한 종이에 붓에 먹을 묻혀서 한자에 쓸 수도 있으며, 감싸는 물을 들인 감지에 금이나 은으로 써서 불상이나 탑에 봉안하기도 하며, 또 첩이나 책으로 만들어 경전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요즘은 사경이라고 하여 종이에 은은하게 인쇄하여 그 위에 가필하도록 하므로 붓글씨가 어렵거나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사경을 대중화하고 있다. 또 반드시 붓으로만 쓸 필요는 없으며, 연필이나 볼펜 등으로 서사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옛부터 사경은 사경체라고 하여 정자로 써야 한다. 이러한 사경을 실천하면 마음이 무병무상의 삼매경지에 들 수 있어 자신의 마음 수양에 크게 보탬이 되며,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으로 신앙적인 발원과 참회 업장소멸로 인하여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불자로서는 최상의 공덕이 된다. 자신이 사경한 것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불상이나 탑 속에 봉안하든지 아니면, 잘 모아두었다가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면 관 속에 넣어주면 그 공덕이 크다고 한다. 특히 지이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사경을 생활화하여 매일 조금씩이라도 정성껏 진리의 말씀을 써간다면 인연도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고수동정

▲김세균(불교이동학)=오는 4일부터 6일까지 교직과정 연합회의 주최로 학술세미나 및 특강 강연으로 일본 미야지키 방문. ▲오영진(일어일문학)=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근대시 강연으로 일본 와세다대학 방문. ▲김영규(의학)=오는 12월 1일부터 '98년 1월 9일까지 공동연구 목적으로 미국 투우산(TUCSON) 방문. ▲김삼규(건축토목공학)=오는 4일부터 7일까지 국제저지반기술연합회 창설회의 참석차 일본 사가 대학 방문. ▲오태석(중어중문학)=지난 31일부터 오는 7일까지 중국고대문화이론 국제학술회의 발표자 중국 공서사범대학 방문.

사랑과 정애 감사드립니다.

■발간처: 기부(약정)자천함(10.13-10.31까지): ₩46,982,820(3건)
황정사(법학96졸, 조흥은행)1천만원
황정그룹(의뢰인)황정사(법학96졸)1천만원
한국R.V(주)관리업체(법학96졸)1천만원
산업기술대학원(김영식, 김기동, 김영복, 안영남, 한정삼)1백만원
회경회(행정대학원)2백만원
김지경(행정대학원)2백만원
롯데호텔서울경주점(자정장이진장)2백만원
최익선(전기공학)1백만원(합2백만원)
김승기(국구부)1백만원
정영우(한국어문학부)1백만원
정연우(법학과)1백만원
문옥태(학생과장)1백만원(합1,687,105원)
홍신선(한국어문학부)1백만원
민영옥(불교학부)1백만원
임무성(불교대학원)1백만원
이금익(불교대학원)403,800원

오현옥(불교대학원)409,800원(합1,409,800원)
신교용(불교신도)1백만원
정영수(불교신도)1백만원
한혜선(불교신도)1백만원
함영미(불교신도)1백만원
정정옥(불교신도)1백만원
오승식(이솔학부)1백만원
부산동림회(회장 김상문)70만원
이서용(외국경제대)40,000원
정혜련(신학대)1만원(합999원)
김현태(정치계신원)50만원
* 동국사랑자금통기금 : 누계 '95.12.97.10.31현재, ₩2,777,900
황영수(서사실장)47,323원(3회,합56,860원)
이형철(법신사)29,670원(2회,합56,420원)
정병호(부총장)26,860원
함영미(불교신도)18,780원

계 400원만기입해부

동대 학술상·문학상 작품을 모집합니다

제 35회 학술상 작품모집
모집분야: 인문과학상: 본상 및 가작 (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사회과학상: 본상 및 가작 (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자연과학상: 본상 및 가작 (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응모요령: 2개분야 모두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입상작과 함께 발표 제출기간: 1997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상작 발표: 1997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제 11회 동대문학상 작품모집
모집분야: 시 부문: 3편 내외, 소설부문: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 평론부문: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1996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상 시부문: 본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소설부문: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평론부문: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입상작과 함께 발표 입상작 발표: 1997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동대신문사

알림

본사는 하이텔 동대동 연륜게시판에 기사 서비스를 제공중입니다. 천리안과 나무누리는 물론 앞으로 인터넷에서도 동대신문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선 앞두고 파행운영되는 정기국회

국정은 국정대로 수행하는 공직자 자세 필요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이 안락으로 말미암아, 정치안정도에 있어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중 최하위요 아시아 국가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한의 국연구소의 조사결과 때문이 아니라, 실제 국민들이 부각하는 하루하루의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 상황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가 그 모양이다 보니 기업인들의 경제의욕도 바다에서 맴돌고 있으며, 환율, 주식, 물가불안까지 복합적으로 겹쳐지는 불바구니에서 국민들은 가히 파국직전의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상황이 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고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오직 12월18일 대선만을 응시하고 있다. 분별이 아닌 공직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위 대선후보자라는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휘젓고 다니면서 국민의 주를살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편승하여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미이기도 한 정기국회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본

회 의장이나 의원회관에는 머물러있지 않은 채, 선거와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이나 일삼고 정치판을 파국으로 이끈 정치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증폭되고 있는 국정위기는 어느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되었다. 국정표류를 보고도 무책임한 정치권이 제대로 행정통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신에 가려버린 국회의 파행운영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 감독기능으로 가장 중시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연례행사로 치러지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국정감사는 그동안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감은 선거나 일시적인 정치일정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대선을 필적으로 기간까지 즐기면서 치러진 국감은, 예상했던대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대선에 눈이 멀어 수박 겉핥기식이 되고 말았다.

계속되는 국가정책의 표류에 약이 오를

국정 표류와 정치권의 책임

시사논단

시사논단



심익섭
사파대 행정학과 교수

데로 올라오는 국민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파행적 국정감사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기국회 일정도 한 달이 나흘 앞으로 보름후엔 아예 금년도 국회도 파장을 선언할 예정이다. 남은 정기국회 기간동안 의원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일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은 도대체 이 어려운 난국을 누구와 헤쳐나갈라는 것인지 불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은 정치인을 대로, 관료들이나 경제인들을 그들 나름대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 시의 귀면만을 늘어놓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은 정치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특히 우리의 경우 1차적 국정표류의 책임을 정치권에 지우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기대와 활력을 주는 것이 정치이어야 할 진데, 작금의 정치인들 행태나 대선후보자들의 선거과정을 볼 때 그런 것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이라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대사를 치루고 있으면서도, 정작

"한국정치"는 실종되어버린 기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호르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2년여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을 위한 비전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 행정, 경제 모두가 국가위기 상황을 심화시키고만 있다. 문제는 언제나 드러낼 수 있는 위기 자체가 아니라 책임있는 정권담당자들의 위기 대처 능력부족과 대응방식의 한계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대선에 매달려 있어, 공직자들은 정권교체 시기에 적당히 눈치를 보며 어쩔 수 없이 남기는 인일한 자세를 보이거나 잘못된 정책마저 오키와 귀면으로 자기정당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선거나 위기 때문에, 안팎이 아무리 어수선하더라도 국정은 언제나 국정대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국가운영의 대원칙을 정치가 세워주어야 할 때이다.

사설

함께하는 학생회 선거

차거운 날씨와 취업난 그리고 계속되는 단과대 학생회장의 연행으로 학생들을 잔뜩 움츠리게 하는 요즘, 한편에서는 학생자치기구의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부상한다.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후보자등록이 지난 31일 마감되며 이어 이번주 내에 각 단과대 선거가 진행될 것이며 경주캠퍼스 역시 오는 4일 총학생회 후보자등록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른바 선거철이 온 것이다.

대학에서 학생회 선거가 가지는 의미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한해 학생회사업 평가의 장이며 차기 학생회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정책생산의 장일뿐만 아니라 늘상 피뎌온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의 선거는 지난 5월 한총련출발식 이후 그간의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며, 학생회는 그 나름대로 자속과 혁신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 학생들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느해보다 중요한 의의를 가진 이

대학은 저작권법의 영역인가

무의식 속에 짓밟히는 지적 소유권

저작권에 관한 지식 절실히 필요

'한 학생이 레포트를 쓰기위해 도서관에서 책을 고른다. 필요한 부분을 2장 복사한 후 흔히 말하는 짜집기를 한다. 참고 문헌 표기를 하고 과제물을 끝낸다' 아무렇지 않은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이 학생은 법을 어긴 범법자이다. 개인의 지적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저작권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대학은 저작권법이다. 그 어느 곳보다 잘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수와 학생들은 이를 무의식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다.

우선 학생들이 작성하는 논문이나 레포트의 경우 다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논문과 과제물의 끝에 참고문헌을 표기한다는 것은 학자로서는 반드시 각주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법대 한상범 교수는 "논문이나 과제물에서의 참고문헌표시가 위법이나 적법이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각주를 이용해 인용부분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출처명시의무와 방법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저작권법 제34조에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이용자는 비

영리공연·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및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제34조 1항)"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명시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명의 표시가 최소한 필요하고, 신문·잡지 같은 정기간행물에 게재되어 있는 논문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명·호수·일자·발행처의 표시를, 서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판수, 페이지의 표시를, 논문이나 서적을 인용에 의한 인용의 경우에는 각주나 후주를 이용해야 한다.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원하는 자료를 1부건 10부건 아무런 제약없이 책의 일부 복사를 통해 얻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8조에는 도서관 등에서 복제시 복제를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만 복제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책값을 아끼려고 친구의 책을 재봉해서 쓰는 학생들도 많은데, 몇 천원 아끼려다 몇 십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 역시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시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적인 복제라고 해도 많은 수량의 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나 의사의 전문직적·논문의 복제, 회사 사무실에서 사원교육용 또는 자료용 복제는 사적이용의 범주를 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 강의를 위해 다른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그대로 재판을 하는 경우도 이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거리낌 없이 재판을 한다.

이렇듯 대학사내에서 저작권법은 무의식중에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고 만 것이다. 김홍환 기자

한의대 새로운 활로 모색해야

분교 한의대 학생회가 다시 상경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회측은 내일(4일) 서울로 올라가 4일간의 상경집회를 자진하고 밝히며 또다시 학교 당국과의 소모적으로 이어질까 걱정된다.

한의대 학생회는 지난 학기초부터 학교측과 상경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결을 벌여온 끝에 총장과의 간담회를 지난달에 가지기도 했다. 그 결과 학생회가 제시했던 '한의대 교육환경 개선 요구'를 학교당국에서는 상당부분 수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의대측은 상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다소 '학교 이기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는 듯하다.

꼼꼼히 따져보면 경주 캠퍼스에서 열리지 않은 학과가 어디 그 뿐이겠는가? 서울로 상경함으로써 우수 학생을 모집하고, 우수 교수진을 초빙하고 싶은 학과는 비단 한의대 뿐만 아니라 고려되어야 한다. 학교당국도 한의대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개선점과 발전 계획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의대 학생회는 그들 나름의 논리를 갖고 상경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대중적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즉, 경주캠퍼스의 발전에 부합하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의대의 진정된 발전도 결국 경주캠퍼스의 전체 발전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학교당국도 한의대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개선점과 발전 계획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197년 보험2대원 경영평가 최우수(AA) 생명보험회사-대한생명

☀️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일한다!'

대한생명 신입사원 모집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비전을 창조하는 곳 - 바로 대한생명입니다.

1. 모집부서 및 응시자격

모집부서	모집학과	인원	응시자격
총합기획	상 계 계	000명	1.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분
영입관리	법 계 계		2. 1998년 2월 4일 대학 학사취득
투자 운영	어 문 계		3. 남자의 경우 병역 또는 면제된 분
일반관리	인문사회계		4. 한의의 경우 1997년 12월 31일 이전 전력이 가능한 분
보험지원			5. 해외여행에 걸려사유가 없는 분

2.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직접 직무능력검사(서류전형 합격한 분에 한함)
- 면접(직무능력검사 합격한 분에 한함)
- 신체검사(면접 합격한 분에 한함)

3.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당사 소정양식).....1통
- 대학원 성적증명서.....1통
- 대학원 성적증명서(해당할 분에 한함)
- 자격증 사본(소지한 분에 한함)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1997. 11. 31(금) ~ 11. 8(토)
- (평일은 09:00~17:00, 토요일은 09:00~14:00, 단, 공휴일은 제외)

※ 채용 서비스 안내

- Internet 대한생명 Home page = <http://www.kli.co.kr>
- 입사지원서 접수, 모집안내, 합격자 발표, 회사소개

5. 교부 및 접수처

지역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 (대한생명 63빌딩24층)	02)789-8201~3
인천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1동	032)870-6402~4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2동	042)220-6401~5
광주	광주광역시 중구 대동2동	062)220-0102~4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2가	053)429-8612~6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초량3동	051)461-6811~7
전주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065)288-2511~2
춘천	춘천시 중앙동1가	0361)52-3886~7
원주	원주시 중앙동	0371)42-1370
강릉	강릉시 속천동	0391)646-3977
목포	목포시 호남동	0631)42-3603
마산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0551)52-5221~2

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일 시 1997. 11. 25(화) ~ 11. 29(토)
- 방 법 ARS(TEL. 02-789-8000), 인터넷 및 개별 전보용지

7. 직선 직무능력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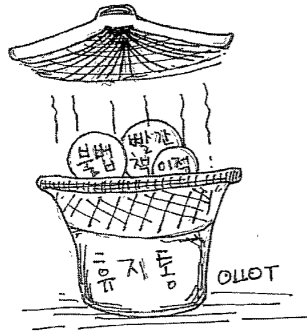
- 일 시 1997. 11. 30(일) 오전 9시
- 장 소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
- 시험과목 직선 직무능력검사

8. 기타

- 야수, 목포, 포항, 구미, 마산, 울산, 진주 지역 근무 희망자는 무대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 인사채용부서(TEL. 789-82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길잡이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동약로



자유

‘논쟁’, ‘서간인’, ‘오늘의 책’, ‘장백’

다름이난 서울소재 대학가 주변 인문사회과학서점 이름이다.

이들 4개 서점은 지난 달 29일 경찰청 보안과 형사들의 압수수색을 통해 ‘월화강의’ 외 40여종의 서적과 거래장부, 매출장부를 압수 당했으며 서점대표들은 이적표현판폐해의로 연행되었다.

바로 다음날 성균관대 유림회관에서 열린 ‘대학언론인 초청 권영길 후보 간담회’에서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대표이자 인사점 신병석 대표는 “인문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이 엄연히 보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며 대학 및 대학가 탄압을 중지할 것을 호소했다.

발언을 듣는 학생들도 비정상적인 사회현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문인정부의 문(文)이 경찰서문(門)이 아니냐”고 계속되는 대학가탄압과 인문출판탄압에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진정한 ‘자유’를 갈구했다. “압수서적 중에는 모태학 수업에 사용된 교재”도 포함되어 있다고 간담회 사회자는 말한다.

이제 더이상 ‘대학’은 존재하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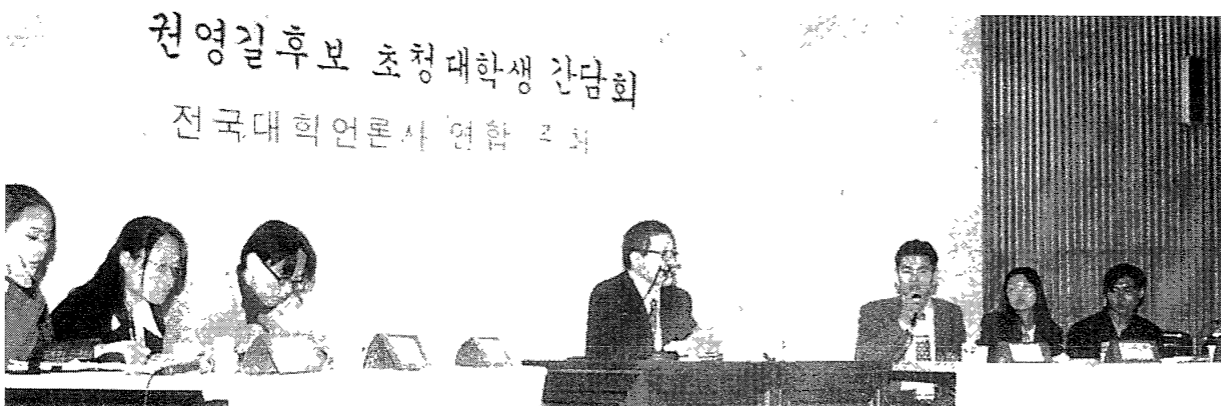
이 사건을 접한 한 학우는 “자유가 없는 대학은 진정한 대학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본교 후문에 위치한 녹두서점의 유승영 대표는 “옛날 군부시대에 아닌데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가짜이나 장사 안되는 서점들을 왜 그렇게 못살게 구는 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비단, 서울지역 서점 4곳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아직도 아니 앞으로 계속될 인문사회과학서점의 탄압은 대학생들의 학문탐구정신을 저해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대선의 속죄양이 된 이번 사건을 바라보며 헌법에 명시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싹이 틈 수 있을 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오인택 기자

대학언론인 초청 권영길 후보 간담회



권영길 후보와 패널들이 열린 토론을 벌이고 있다.

‘권영길 후보 간담회’ 개최 대학언론사 주최로 성대에서

지난달 30일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대학방송국연합, 전국대학영자지연합, 전국전문대학신문기자연합, 서울교차편집위원회연합, 전국대학신문기자연석회의 등 대학 언론사 공동주최로 ‘대학언론인 초청 권영길 후보 간담회’가 성균관대 유림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전대기권 서울 서부지부장 김영철 서강대 편집국장 사회로 △내빈인사 △환영사 및 연대사 △권영길 후보의 주제발표 △패널토론 △객석질문의 순으로 약 두시간 가량 진행됐다.

패널토론에 앞서 권후보는 주제발표에서 “현시점에서 정치인들의 자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고 21세기 진정한 지도자는 통합력, 도덕성, 창조성, 통찰력, 인간성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며 “진보적이고 양심적 정치조직인 국민승리당을 결성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대학교육, 언론·민주주의, 대선과 국민승리당, 국제경제, 통일, 경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질의·응답이 패널과 권후보간에 오고 갔다.

권후보는 “지지율이 기대에 못미치지만 앞으로 국민승리당은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세력교체를 추구하겠다”는 말로 간담회를 정리했다.

한편, 시간관계로 질의·응답시간과 권후보의 답변이 짧아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인택 기자

패널과의 질의 응답 “노동자와 국민을 하나로 묶고자 한다”

권영길 후보의 주제발표가 끝난후 대학언론사 기자들로부터 구성된 패널과 권후보자의 질의 응답이 이어진다.

—대학생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취업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정리해고제를 시행하면서 언론의 과장된 보도로 취업난이 심각하게 대두됐다. 재벌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전 분야종육성, 경쟁체제의 기동성발휘를 위한 중소기업체로 경제흐름이 바뀌어야 하겠다. 예를 들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육시장개방에 따라 대학마다 특성화, 기업화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중 학부제 문제에 대한 생각은
=기본취직인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학부제 운영상의 문제, 특히 기업의 시장논리가 침투하면서 특정 인기학과에만 편중되는 등 불균형적인 발전을 한다던 이는 미망히 폐지되어야 한다.

—최근 인문사회과학 서점 4곳이 압수수색 당하며 서점대표가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민승리당의 입장은?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승리당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

—민화규제, 귀어영호제 탄압 등 문화전반에 탄압이 가해지고 있는데 문화정책을 바라보는 견해는.
=문화의 핵심은 ‘자유’이다. 정부의 입김, 법의 규제, 사회관습의 규제로는 문화창달이 어렵다고 본다.

—국민승리당이 지향하는 정치적 성향은.
=국민승리당은 노동자계급의 관점과 국민의 관점을 하나로 묶는 데 뜻을 둔다. 국민승리당은 국가보안법철폐, 북한통도포용기, 전·노사면반대, 정·경유착근절, 노동시장자유화 반대, 사회복지제도실시 등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기존 보수 정치세력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가지고 있다.

—연방제 통일방안과 범민련 중심의 3자 연대방안에 대한 생각은.
=연방제 통일방안은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다. 범민련 3자연대방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쪽의 하나된 목소리를 담아내고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모두가 통일의를 한차원 높여야 하겠다.

—국민승리당의 21세기 사회복지 대책은 가능한지.
=사회복지는 국민승리당의 1순위 공약이다. 현재 예산확보가 어려워 복지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사채시장 발달, 고지자 문제해결, 국방비의 효율적 운영 등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예산의 효율적 관리만 된다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부

11월 3일은 ‘학생의 날’

오늘(3일)은 1929년 일본인 학생들의 조선인 여학생 희롱사건에서 발단이 되어 일어난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선배의 추모, 학생들의 애국심 앙양, 학원의 자주 및 면학 등을 위해 1953년 당시 국회에서 ‘학생의 날’로 제정, 영원히 학생들에게 그날의 영광을 돌리고자 한 바로 그 날이다.

학생운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광주학생운동은 학생들이 스스로 일제의 만행

을 규탄하고 독립에 대한 열망을 나타낸 일제시대의 대표적인 학생운동 사건이었다. 이러한 구국의 정신은 당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한 1960년의 4·19혁명이라고 하는 또하나의 의거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런 취지로 제정된 학생의 날은 60년대 초 등장한 5·16군사정권의 부정으로 1974년에 폐지되어 그 본연의 뜻을 찾지 못한채 일부 뜻있는 학생들과 재야 인사들 사이에서만 거론되어 오다가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난지 55년만인 지난

1984년에 부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후에도 학생운동은 독재체제에 항거하여 끊임없이 투쟁하고 반민중적 성향에 있어 있는 지배층에 자각을 심어주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갔다.

학생운동이 변혁과 변화를 필요로 하는 대가이 이룬 지금의 시점에서 이 사회는 학생들의 냉철한 지성을 바탕으로 한 현실직시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학생의 날을 맞이한 우리는 선배의 넋을 후배가 이어받을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유철주 기자

기획-15대 대선 어떻게

1. 총론
2. 미디어 정치' 이렇게 지리 잡아야 한다.
3. 대권주자들의 경제정책 분석
4. 대학생이 보는 대선
5. 대선의 구도와 윤곽
6. 올바른 유권자의 태도

유권자들이여 떳떳하고 주체적으로 선거에 임하라

외국에서 정치와 관련하여 가장 인상깊었던 경험은 ‘비직업으로서의 정치활동’이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강의시간 사이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시한다. 선거때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자기의 여가를 이용하여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거나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듣는 모임을 갖곤 한다.

시위를 하던 학생들은 강의시간이 되면 교실로 복귀하고, 직장인들도 정치에 관여한다고 해서 자기 직장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는 것과 같이 정치에서 개인적인 소득을 바라지도 않는다. 이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고 정치가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만큼 자기의 시간과 자원을 정치에 투자하는 것이다. 직업정치인들은 물론 정치를 자기의 직업활동으로 삼는다. 내가 몸담고 있던 학교에서는 학생회장으로 선출된 학생은 일기동안 휴학을 하고 학생회활동에만 전념한다. 그대신 학교는 그 학생의 장학금을 1년 연장해 준다.

저비용 정치는 이렇게 비직업적인 정치활동과 관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에게까지 불려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치가 고비용을 탈피할 수 있겠는가. 선거란 본래 국민이 일정한 임무를 맡길 사람들을 뽑는 제도이므로 유권자들이 능동적으로 좋은 후보를 고르거나 지지하는 후보를 밀어서 당선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형태는 유권자들은 매우 수동적인 것이어서 선거에 관하여 사적인 장소에서 사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것에 불과하며 선거과정에서 사적인 이득을 챙기려는 현상으로 일부 발견된다. 우리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들이 공직에 나가거나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공직에 관련되던가 하는 때에 두드러지며 그 이외에는 별로 정치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이 지낸다. 이와는 반대의 현상도 있는데 일단 정치에 뜻을 두면 본업이건 가정이건 앞날이건 모두 핑계치고 정치에만 몰두해 사는 사람들도 본다. 전자는 아마도 한국에서 오랜 경험으로 정치는 위험한 것이고 지지분한 것이라는 인식이 박혀 개인적인 이유가 없는 관여할 바가 못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 것이며, 후자는 이른바 운동권에서 흔히 발견하는데 정치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 다른 관심사는 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정치를 있게 한 현실에 대한 반동으로 나오는지도 모른다.

여하간 정치는 일정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모여서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그 성취도와 그 성취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오랜 시간을 요구한다. 정치에 대해서 지나치게 큰 기대를 거는 것도 현명한 일이 못되지만 정치를 위험하고 더러운 것으로 생각해서 기껏해야 사적인 연관만을 추구하는 것은 더욱더 옳은 일이 아니다. 그 때문에 정치를 위해 사람도 병에도 다 버리던지 아니면 숨어서 몰래 정치물을 잡으려 하는 양태가 나온다.

이제는 우리 유권자들이 좀 더 떳떳하고 주체적으로, 그러면서도 신중하고 사려분별 있게 정치에 임할 때이다.

라종일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독일에서의 1년, 그 한은 자동차에서 보냈다. 남독독일의 정취를 느끼며, München에서 Memmingen으로 가는 길에서.

독일에서의 무한질주, 1년

Heidelberg, Michelstadt, Köln, Stuttgart...

라인강변을 따라 산책대개의 고성들을 뒤로 하고 달리고 또 달렸다.

30,000Km에 이르는 아우토반 위에 서면, 무한 자유를 느꼈다.

1년간의 무한질주, 그리고 지역전문가로서의 무한자유 1년!

그 자유 속에서 처음 느낀 나만의 무한한 잠재력을 키웠고, 돌아오는 길엔 몰라 보게 자라 내 삶을 만날 수 있었다.

정병곤 (삼성자동차, 독일지역전문가)

삼성엔 인재를 키우는 일을 잠재력을 키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지역전문가, Socio MBA, Techno MBA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당신을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SAMSUNG
삼성

동학의 선거

동학에 본격적인 선거의 막이 올랐다. 동연과 졸준위는 선거가 이미 끝났고 제30대 총학생회장 선거는 작년과 달리 경선으로 치러질 예정이며, 오는 4일부터 7일까지는 단과대 선거가 실시된다. 중앙기구 및 단과대선거후보자 등록상황을 알아보는 등 동학의 선거를 짚어보고자 한다.

동학, 본격적인 선거의 막이 올랐다

총학·총여·단과대 등 후보등록 마감 ... 총대·4개단과대는 미등록 예년 비해 조용한 선거분위기 ... 학우들의 무관심으로 이어질까 우려

동학은 지난 10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박병제·철학4)가 구성되고 10일 선거일정이 공고된 후 17일 단과대 학생회장, 31일 총학생회장 후보 등록을 마치고, 동아리연합회, 졸업준비위원회가 선거를 마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우선 제10대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에 김기석(물리3)군이, 제 14대 동아리연합회 회장에 박영민(건축3)군이 당선돼 졸업준비와 동연의 '98학년도를 이끌게 되었다.

31일 등록을 마감한 제30대 총학생회장 선거는 △김=정후보에 구준서(정치공4)군과 부후보에 이대성(국공3)양이, △을=정후보에 허창수(정의3)군과 부후보에 김준환(건공3)군이 후보로 해 경선으로 치러진다. 총학생회장 선거는 오는 7일부터 1차 유세가 시작되며 투표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에 걸쳐 실시된다.

총여학생회장 선거에는 '동학여성의 background. 길들여지지 않는 자신감으로 당연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들'을 외치며 정후보에 이경원(철3), 부후보에 이가람(인문2)양이 출마했다.

한편 총대의원회 의장 선거는 후보자 등록이 없어 총대의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등록기간을 연장할 것인가, 내년엔 치를 것인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치러지는 각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는 총 12개 단과대 중 이과대, 법과대, 경상대, 예술대가 후보등록으로 내년 3월로 연기, 정보산업과대학이 학생회가 없는 관계로 7개 단과대만 선거를 실시한다. '97학년도에 신설된 정보산업과대학은 아직 학생회가 출범하지 못해 11월 18일 정보산업학부 총회를 열어 학생회장을 선출하고 학생회를 건설할 계획이다.

7개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 입후보자와 선거일, 기조 및 모토는 다음과 같다.

불교대

▲갑 △정후보=정준호(불3) △부후보=권기태(불교학부2) △기조=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불교대



등록관 앞에서 한 후보자가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을 △정후보=김민규(불3) △부후보=정원기(불3) △기조=새로운 불교대, 깨어나는 불교대, 나아가는 불교대 △선거일=11월 4,5일

문과대학

△정후보=최진범(영문3) △부후보=오종진(사3) 단과 입후보 △기조=11년 애국의 열정, 승리의 감동, 일천 명진 속에 뜻대있게 거듭나는 한총련 △선거일=11월 4,5일

사회과학대

△정후보=이종열(정의3) △모토=젊은 우리 POWER OF ONE 맑은 시선으로 권력을 포위하라 △기조=한총련 해소와 신연대체 건설, 학사행정 간 시너지 운영 △선거일=11월 4,5일

생명자원과학대

△정후보=성나현(생자부2) △기조=더이상 물러날 수 없는 한총련 사수의 길, 과, 학부, 단과대 학생회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하여 학생회의 근간을 올바르게 세워내고, 한총련과 학생운동의 순수함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선거일=11월 5,6일

공과대학

△정후보=유홍식(산공2) △이홍범(공학계열2) △선거일=11월 4,5,6일

사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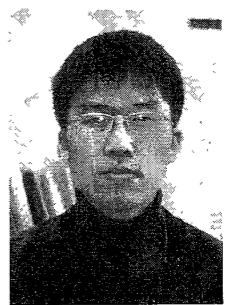
△정후보=이선진(수교3) △부후보=정주영(역교3) △기조=한세대의 땀방울로 이룬 지주학림! 울퉁게 시대를 바라보는 천백의 당당함으로 계승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라 △선거일=11월 5,6일

이부대학

△정후보=이종환(전산통계3) △부후보=김영삼(경영3) △모토=아간강좌 2천 7백 학우들의 삶의 지향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기조=미래를 학우들의 삶의 지표를 되찾아 다양한 삶을 하나의 희망으로 만들어 나아가자 △선거일=11월 4,5,6일

'98학년도 동공의 대표를 선출하는 이번선거의 의의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끈두박질 해버린 한총련의 위상과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학생회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개 단과대가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등 다소 불안정한 모습이다. 선거철이면 동학 곳곳이 떠들석 했던 예년에 비해 조용하기만 한 선거 분위기가 일반학생들의 무관심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김용환 기자

박병제 선관위장에게 듣는 '98 학생회선거



박병제(철학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단과대 및 중앙선거 후보자들의 예년과 비교해 두드러진 특징과 선거 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들어보았다.

- 예년에 비해 두드러진 후보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 한총련에 관한 논의가 유세과정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한총련 혁신 및 사수와 한총련 해체 주장이 후보자들의 유세장소 곳곳에서 들리는데 그간의 언론에서 한총련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던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 학우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어느정도인가.

= 지난 29일 선거를 마친 졸업준위선거 투표율이 높았다. 또한 총학 등이 경선으로 선거가 치뤄지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투표율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불교대 유세 과정에서 과열양상이 나타나 문제제기가 있었다는데.

= 후보자의 유세 도중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 압축 후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진상 조사를 거쳐 회칙에 위배되는 일이 있었을 경우 징계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불교대 선관위에서는 유세에 관한 세칙을 준비하고 있다.

- 지난 10월 24일 공대 신영용(컴공2) 을후보자의 등록무효공고에 있었던데 경유는.

= 을 후보자의 후보추천인이 부족해 선거 입후보 등록을 취소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1일 을 후보자가 제출한 후보추천서 중에 중앙선거관 직인이 찍히지 않은 복사용지가 있었고 이외에도 이름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추천자 4명과 타단과대 및 휴학생의 이름이 있었다.

중앙선거관에서는 일단 복사용지를 제외하고 선관위 추천용지에 기입한 2백81명 추천자의 도장만 확인해 최소추천인원 278명이 넘자 을후보자의 등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278명 중앙선거관위 학적과에서 넘겨받은 2학기 등록자 명부와 추천자 명부 확인 결과 이름 미기재자와 타단과대 및 휴학생이 명부에 올라와 있음을 발견했고 추천자가 2백77명임을 공과대 선관위에 통보하였다. 이에 공과대 선관위에서 후보자등록에 관한 논의를 거쳐 후보자 등록 무효를 결정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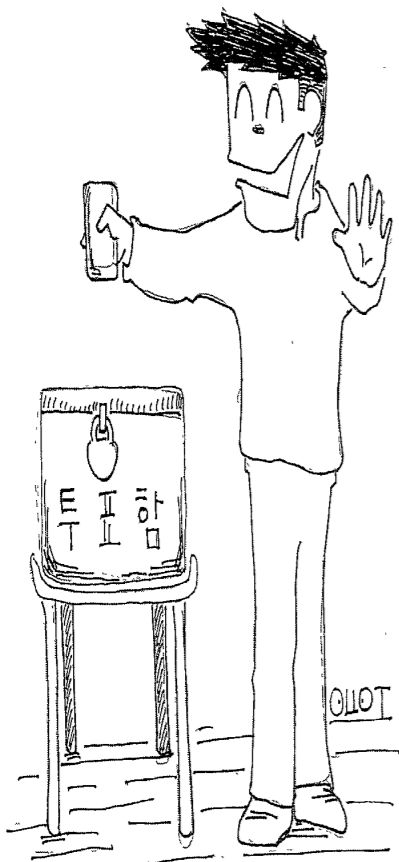
- 신영용 학우가 후보등록무효는 잘못되었다는 자보를 붙이는 등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 공대 선관위의 논의도 등록무효 통보가 늦어진 것이 선관위측의 잘못이지 그 외의 사항들은 회칙에 어긋나는 점이 없다. 공대 선관위에서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할 것이다.

- 선거에 임하는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학생회는 학생들의 대표권을 가질 뿐이며 학교와 학생들의 주인은 학우 개개인이다. 학생회를 이끌어 나갈 대표를 뽑는 선거에 학우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임해주길 바란다.

또한 소규모 집단인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자칫 인맥 위주로 투표할 수 있는 만큼 학우들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리라 본다. 인맥보다는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진실성에 근거하여 투표에 임해주길 당부한다. 최진 기자



"효율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57%의 지지율로 지난 29일 제10대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된 김기석(물리3)군을 만났다.

-당선소감은.

=맨발로 뛰었던 것이 이렇게 당선으로 이어져 기쁘다. 나를 믿고 지지해준 학생들에게 고맙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꼭 보답하겠다.

-현재 졸업준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일부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효율적이고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앞으로 졸업준위 사업계획은.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그리고 창업정보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강연회를 마련할 생각이고, 각 단과대의 특성에 맞는 취업준비와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또한 졸업준위 차원의 정기간담회를 만들어 학생들의 정보유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것이 10대이후의 졸업준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유철주 기자

"학생자치권 회복 위해 노력하고 싶다"

총 유권자 1백 86명 중 71.5%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93.2%의 찬성율로 제14대 동아리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된 박영민(건축3)군을 만나보았다.

- 당선소감은.

=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 현재 동아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동아리 고유의 자기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는 각 동아리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걸림돌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회관 앞에서 많은 공연활동을 벌이고, 자유발언대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 학생운동 탄압이 심화되면서 학생자치권이 목살당하고 있다. 학생자치권의 회복을 위해 대외적으로는 학생운동단체에 대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학생회관 24시간 개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 동아리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싶다.

김미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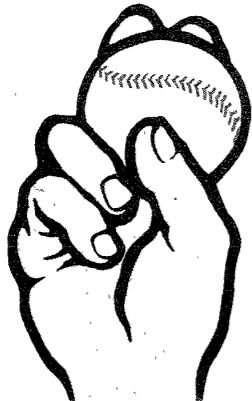
가치있는 내일 함께하는 삼양

http://www.samyang.co.kr

"단조로운 구질로는 세계를 정복할 수 없다"

계이무리 직구를 잘 던지고 변화구를 잘 던져도, 직구 하나 변화구 하나만으로는 세계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력이 강한 사람, 주위를 관하게 하는 사람,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사람...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의 다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삼양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 가장 큰 힘을 만들어 내는 기업입니다.

직선적이지만 결단력이 빠르고 일처리가 신속한 사람



직구
가장 기본적인 구질은 무조건 빠르고 직선적인 스트라이크로써 내 구질을 모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한 발도 느리지않 남들 못보는 것을 보는 사람



배치구
직구와 다르게 눈높이 12~18cm 정도 높이 타자의 타이밍을 맞아야 한다

평범해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에 더욱 강해지는 사람



승구
직구처럼 보이지만 타자 앞에서 갑자기 기어 올라 발사할 때 위력으로 구를 투구에 주는 구질이다

문제에 부딪히면 언제나 남과 다른 길을 찾아 해결하는 사람



승리구
홈런이든, 장타든 60m에서 바깥으로 쏘아 타자를 낚는 원거리 구질인 변화구이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가끔 주위를 놀라게 하는 사람



내루틴
시속 75~80km 정도에 회전이 전혀 없어 타자 눈속으로 보면 단조로운 투구이지만 공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변칙 구질이다



삼양사(화학, 살탕, 사료, 화학, 환경, 의학) • 삼양중공업 • 삼양제스 • 삼남석유화학 • 삼양화학 • 신한제분 • 삼양종합금융 • 삼양메디케어 • SY텍스타일 • 삼양텍스 • 삼양메이커시스템 • 삼양텔레콤 • 삼양피앤스 • 다원실업(피이버) • 삼양그룹연구소 • 삼양회 • 삼양정리청

책소개

새벽산사에 가보세요

“살짝 귀 떨어진 석탑 옥개에 때가 가루스름 끼어서 천년 고찰, 눈 나쁜 나는 글빛 눈부신 부처님은 보지 못한다”

중국 후베이성 대학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미영순 박사의 수필집 '새벽산사에 가보세요'는 마음의 눈으로 산사를 둘러본 일종의 기행문이자 사찰 순례기이다. 실명이라는 매개를 치르고 넓은 사유의 세계를 얻은 그녀가 고국의 30여 사찰들을 둘러보고 쓴 이 책은 마음의 눈을 세상 들여다보는 통찰력의 깊이를 실감할 수 있다. 시공사, 정가7천원

한겨레 21 연애편지 CD-ROM

“그나마 우리가 스스로 위안삼는 게 있다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몇 가지를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독자와 우리 사회가 조금씩 이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작진들의 얼굴과 목소리, 살아가는 공간, 담은 동영상, 한겨레신문사의 다우먼트리, 한겨레21의 포커스트 제작된 시시시 기획, 풍자만화로 메뉴를 구성한 CD-ROM을 제작하여 한겨레 21독자에게 보내고 있다. 한겨레 신문사, 비매품

이탈리아 자율주의 정치철학 1

“오늘날 우리가 노동자 계급의 자율성에 대해 말해도 좋을 것인가? 그것을 노동자들의 사유와 실천의 준거로 생각해도 좋을 것인가? 혹은 그것이 진정한 사회 혁명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논리개체로 되지는 않을 것인가?” 노동자 계급의 자율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할 때 우리는 곧바로 이러한 질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셰르시오 볼로냐, 안토니오 네그리 등이 썼으며 전체 5부로 나누어 실었다. 총 5장으로 논문형식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를 그 주류 무대만을 대상으로 삼아서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이러한 견해들과는 전혀 상이한 방식으로 오늘날의 세계사를 관찰했다. 갈무리, 정가1만원

교수신문 CD-ROM

“90년대 대학·교수사회를 한눈에 읽는다. 우리시대 팔각발이들의 육체는 목소리 교수신문 창간호부터 1백10호까지 기사 전문이 수록돼 있다”

교수신문이 창간 5주년을 맞아 창간호부터 1백10호까지의 신문문을 모아 제작했다. 방대한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수록돼 소장가치도 높다. 교수신문, 정가22만원



이영경 지연대 조경학과 교수

오늘 아침 나는 겨울 의복을 입고 출근을 했다. 이리도 추운걸 보면 다음해도 곧 코앞에 와 있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느끼며 살지만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간다. 생각하면 동네 산을 뛰어다니며 놀기만 했던 아이적 시절부터 엄마와 아내와 선생 사이를 좌충우돌하며 살아가는 지금까지 그 수십년의 세월이 마치 한 순간에 있었던 일처럼 아련하다.

내년이면 내 나이 40이라는 나이는 아직도 그 40년이 이토록 빨리도 지나갔을까? 그리고 그 배름보다 더 빠르게 앞의 40년도 지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가면 지금은 참으로 늙어 나처럼 젊은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어르신과 똑같은 얼굴을 내가 하고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 한 순간 한 순간이 참으로 귀중하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은 그 한 순간이 지난 40년과 앞으로의 40을 이룰 조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한순간에 대한 진지함과 성실함만이 내가 기억하는 내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매년 신입생 환영회 때면 나는 항상 같은 말을 하곤 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뿌듯한 졸업을 위한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를 보람있고 성실하게 보내라고... 누가 들어도 진부하기 그지없는 내 얘기는 별 설득력이 없어서인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졸업을 바로 앞두고 전

이 순간에 성실하자

까지의 졸업이 그저 미래에 발생하는 것으로만 여기는 것 같다.

그러나 졸업은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이 곧 흘러가 과거로 되어 버리는 것과 같이 현재로 다가오는 것이며, 나처럼 또는 주위의 모든 어르신처럼 우리를 모두는 40의 중년이, 80의 노년이 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빠른 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윤택하게 사는 걸까? 지나갔음을 알았을 때 후회 없도록 그때그때 주어진 일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세상의 일은 그 당시의 상황이 나 지식으로 나쁘다거나 좋거나 판단한다는

달하나 천강에

계 참으로 오산인 것 같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그 순간에 진실하고 충실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우리 모두 순간 순간에 진실하고 성실하자. 수업을 들을 때면 그 수업에, 설거지를 할 때면 그 설거지에, 영화를 볼 때면 그 영화에, 운동을 할 때면 그 운동에, 연애를 할 때면 그 연애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고자 결심했다면 그 결심이 후회되지 않도록 성실한 것만이 이 빠른 시간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견실한 자세인 것 같다.



이영경 지연대 조경학과 교수

97 노벨 문학상 낙방에 부처

탁월한 작가·작품 알려내는 문화정책 마련해야

조급한 로비정책으로 민족문화 더럽혀선 안될 터

“그까지 노벨문학상이라니 난 관심도 없어요. 그건 이미 세계문화의 수준에서는 인류들의 놀이가 됐고 로비 없는 아무것도 안되는 타락한 문학상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시인이나 작가들 가끔 만난다. 그 기고만강한 허세가 놀랄 것도 하지만 ‘그까지 노벨문학상’을 단 한 차례도 수상하지 못한 한국문학의 처지는 그런 일들을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가기가 쉬운 형편도 아니다.

노벨문학상을 여러 나라의 문학들이 거두어들이는 최대의 성과로 온 세계가 공인할만한 평가의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기 어렵다.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작가의 작품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상자 결정이유와 함께 발표되기도 하고 문학 외적 조건이 수상자를 결정하기도 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벨문학상의 역대 수상자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다소의 예외는 있으나 서구중심적 또는 백인중심적으로 상이 운영돼 온 사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노벨상이 제정된 이후 단 한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한 이유를 찾기로 어렵지 않다. 우리 문화가 유능한 번역자를 배출하지 못한 것,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서방에 알려지지 못한 것,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인 문화정책을 가져본 경향이 없었다는 것, 나라의 전체적 형편이 부실했다는 것 등등, 서구인들이 한국문학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별로 준비된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우리 문화에는 과연 노벨상을 수상할만한 시인이나 작가는 충분한가. 충분치는 않으나 우리 문화는 그런 문사를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예컨대 서정주나 황순원 같은 이들을 꼽을 수 있다)

편집자가 묻는 두가지 질문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지 못한 이유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을 받으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조건이지만, 첫째로 탁월한 작품을 생산하는 작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너무 당연한 진실은 종종 간과되기도 한다. 부실한 작품을 가지고 탁월한 작품과 경쟁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둘째, 로비에 의해서 수상할 수도 있다는 천박한 사고를 버려야 한다. 이것은 뒷거래로 성사되는 정치 외교적 행위가 아니다. 훌륭한 번역된 탁월한 작품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셋째,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인 이 분야의 문화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기껏 독립시켜 놓은 문화부를 소문도 없이 문체부로 만들어버린 정치집단이 존재하는 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태리의 경우 스웨덴과 매년 다섯명씩의 국비유학생을 상호교환해서 상대국의 문화를 배우도록 장려하



다리오 포



97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이탈리아 극작가 겸 배우 다리오 포(왼쪽) 아내 프랑카 라메(오른쪽)

는 경우도 있고 파블로네루다의 나라에서는 문학청년을 외교관으로 선발해서 유학을 시키고 문화의 견문도 넓히는 정책을 펴기도 한다. 우리의 경우 외국의 우수한 문학청년들을 불러들여 그들에게 장학금을 장기적으로 지급하고 한국문학에 대한 체계적 연마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해외에 충분히 소개되고 알려진 소수의 작

가들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그의 문학을 관계국에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는 부실공사처럼 남의 눈을 속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거들먹거리거나 조금씩 끌어다 안된다. 민족문화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경우라면 차라리 상을 받지 않는 쪽 보다 못한 것이다.

홍기삼 문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회 동국문화예술제

‘불교에 근원한 전통성 재정립’ 다양한 장르 선보여



지난달 28일 개교90주년기념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열린 ‘제1회 동국문화예술제’는 무르익은 가을 저녁을 ‘우리의 전통문화’로 화려하게 수놓았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 추고’, ‘악기를 연주한’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두가

지 이상의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국내의 내노라 하는 전통문화예술인으로 공연장을 가득 채운 4백여명의 관객들을 ‘울리고, 웃게’ 했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그들이 분교 문화예술대학원(원장=홍윤식·역사교육) 출신이라는 것이다.

개막사에서 홍윤식 원장은 “본교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온 민족문화 교육의 전당”이라며 “전통문화에 대한 재인식과 체계적 이해를 통해 우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그 목적

을 밝혔다.

‘불교에 근원한 전통성의 재정립’이라는 행사의 취지와 결맞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판소리, 무용, 대금·독주 등 그 분야도 음악, 무용, 연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특히 중요 무형문화재인 안숙선(한국음악 5기)씨의 판소리 ‘사랑가’는 흥겹고 구경성 가득한 관객들이 중간 중간에 추임새를 곁들이기도 해 관객과 함께 하는 공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김영임(한국음악 2기)씨의 ‘회심곡’은 덕을 쌓아 수삼공덕하기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감격찬 중년부인들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극악과 겸임 교수인 김덕수씨의 사물놀이

이 공연은 많이 필요없는, 그야말로 흔히 살아있는 무대였다. 가슴을 후려치는 듯한 사물놀이 공연에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답했다.

동국문화예술제는 막을 내렸지만 장내 열기는 한동안 식을 줄 몰랐다. 전통문화에 대한 경의심과 애착심이 공연장에 모인 4백여명의 가슴 속에 생겼을 것이다.

올해 처음 실시된 동국문화예술제는 불교에서 기인한 전통문화의 유산을 현실에서 드러내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으로 참여한 사람들 모두에게 기억될 것이다. 이번 동국문화예술제를 계기로 본교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민족문화 교육의 본교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미경 기자

One & Only

The future together

보는 눈이 다르다면 미래가 달라진다.

보다 멀리 볼 줄 아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직 최고를 향하여 변화와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역사를 바탕으로, 코오롱은 더 큰 도약을 위해 이미 파천 신사육을 완공하였고, 첨단 섬유공학, 정보통신, 유통, 레저 등 미래산업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진보적인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코오롱이 있습니다.

매아리

-TV드라마부분
MBC미니시리즈 '예감'

아직도 '질투'를
질투하다니!



우리가 알고 있는 '저주스런 3탄'의 명단을 뽑아 올리기는, 3탄까지 만들어진 영화를 꼽아보는 것 보다 조금 더 수고스럽다. "관객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2탄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말과 "관객의 여전히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또 3탄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말 사이에는 공묘와 변명, 약삭빠름과 미련스러움의 '한끗' 차이가 '견딜 수 없는 강' 되어버리는 순간이 존재한다. 예외적으로 거룩한 삼위일체를 이루는 작품에 대해서는 '3부작'이라는 작위(?)가 수여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용두사미' 내지 '개굴발'이다. 그도 아니면 관객의 뜨거운 성원과 별 관계

없고, 관객의 습관적인 중독과 더 내밀한 '기다란 줄', '오멘'이나 '젓소부인' 시리즈가 돼버리는 것이다. TV 드라마는 같은 제목에 다른 번호를 달고 나오는 경우가 없다. 영화처럼 연출자나 작가가 전면에서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다고 주요한 배우와 배역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예감' 같은 소위 트랜디종 드라마는 서사가 너무 많이 남아 있다. 그것이 화장품업계전 백화점업계전, 모델계전 방송계전, 파워업이전 카레이서전, 아이스하키전 농구전 간에 참춘 남녀들의 일과 사랑과 우정이 기본 공식인 것만은 틀림없다.

빠르고 감각적인 영상, 거기에 앞뒤로 드라마 주제곡이 삽입되고, 다음 회 예고편이 소개되며, 인기와 비례해 누구누구 목걸이, 누구누구 머리스타일 등 텔레토마켓이 속출한다. 트랜디종 드라마의 원조 '질투' 이후 이 모든 것은 관습이 되어버렸다. '질투'는 선택이론을 질투하며, 질투 이후의 드라마들은 한편으로는 질투와 같아지려고 고군분투하며, 한편으로는 질투와 또 다른 질투들과 다르게 보이려고 악전고투한다. 예감은 유림(이해영 분)의 성실하고 정직한 신분상승, 조강지부 준섭(감우성 분)을 버리고 왕자 경민(손지창 분)을 따르

지 않는 순수한 사랑, 여자 조역 장실장(김유진)과 경쟁이 아닌 협력을 이루는 점을 차별화된 전략으로 내세워 지난 9월 22일부터 MBC월화 미니시리즈로 인기 리에 방영되고 있다. 그러나 5년 전 질투의 신화를 만든 전설적인 인물 이승렬 PD가 '파일럿'을 거쳐 예감으로 가는 길을 '3부작'으로 불렀는지, '용두사미'로 불렀는지 '완결 없는 복제의 나라'로 불렀는지 고민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까닭은 "시청률지상주의"라는 쉬운 답 때문이다. **한승희**
본교 영화학과 석사과정

시공 뛰어 넘는 가상대학 머지 않았다

가상 대학 수업 일기 **각대학 대학세칙 마련·공동체 교육 충실해야**
2002년 동국이의 오후

오후 3시 동국이는 따뜻한 겨울 햇살을 받으며 눈을 떴다. 밤새 WWW.321.78.67에서 과 동기와 함께 레포트를 썼다. 어머니가 아침이 됐어도 깨우지 않은지 오래다. 시간 맞춰 가야 할 학교도 없고 단지 컴퓨터만 키면 된다. 아무때나. 이불을 걷어내는 동국이는, '오늘은 밤새서 이번학기 밀린 공부를 다 할까?' 한 학기 공부할 내용이 모두 데이터 베이스에 있으니, 하루종일 일찍 일어나 그 동안 밀린 내용을 검색하고 늦기전에 과제물만 보내면 그만이다. 조금 자란 머리가 말려 까치집이 됐지만 동국이의 학구열을 가로 막지는 못한다. 잠옷바람에 헛차게 모니터를 켜고 컴퓨터앞에 앉은 동국이를 맞는 한 여자의 목소리.



무료로 등록할 수 있는 '유니버시티 캠퍼스'를 개설했다. 답장이 없는 사이버 공간상에 캠퍼스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가상공간에서의 교육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기로 이어졌다. 교육부에서 지난 10월 21일 가상대학 시험운영안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12월 15일까지 가상대학 시험운영을 희망하는 대학의 지원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내년 2월에 5개내외의 대학을 선정해 오는 98년부터 2년동안 시험운영할 계획이다. 시험운영안에는 운영형태와 시험운영기관 선정기준을 비롯한 운영적용대상 및 적용과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원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 프로그램까지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교육부의 발표는 '가상공간에서의 교육'을 미래의 꿈이 아닌 현실의 이야기로 인식하게 했다. 교육부의 몇몇 통상사 기준하고 있는 가상대학의 모습이 갖추어질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거리에 상관없이 원하는 대학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먼 외국의 대학이라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그 거리의 격차가 느껴지지 않으며 가상대학 안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은 대학',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

"안녕하세요? 2002년 12월 11일 오후 3시 23분입니다. 김덕달 교수님과 방세이 선배로부터 한통씩 메일이 왔습니다." 동국이는 말하기가 귀찮아 자판기에 연타를 친다. 김덕달 교수의 빨간 얼굴이 모니터에 나온다. "동국아 이렇게 과제물을 안내서 어떻게 학점받고 졸업하려고 그러냐?" 동국이는 Ex를 눌러버린다. "동국아 잘 잤지? 얼굴을 볼 수가 없구나 겨우 한달에 한번 모이는데 뼈까지 좀 마라. 요번에 WWW.345.89.78 여자애들이랑 설악산 가자고 했거든. 거기 가서 애들 확인하고 좋으면 세이해라" 그리고 보니 학교 친구들과 만났다가 꽤 오래 전이다. 친구들이 지방에 있는 탓도 있지만 특별히 만나는 장소가 없으니 별 도리가 없다. 다시 한 번 Ex를 누르고 동국이는 마우스로 단축아이콘 '올학교'를 더블클릭한다. '동국 도서관 검색용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 '사이버 캠퍼스 생활을 위한 도구'가 화면에 나타났다.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하니 전공교수를 얼굴이 나타난다. 김덕달 교수의 빨간 얼굴을 보다 가장 접속을 안한 강좌다. 우선 한 번 클릭해놓는다. 분홍색으로 얼굴이 바뀌었다. 동국이는 얼굴이 노랑고 웃고있는 이준수 교수 얼굴을 클릭한다. 우선 재밌는 영화과목부터다. 갑자기 이 여자 목소리가 나온다.

원격강의 앞서 학사행정 마련 시급

교수, 직원, 학생 멀티미디어 활용해야

본교 가상대학설립연구위원회 연구위원 이건(사회학)교수를 만나 본교의 가상대학 연구 단계와 가상대학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 본교의 가상대학 실행 준비정도는. = 교육개혁 종합관리팀에서 지난 10월 1일 박부권(교육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상대학설립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몇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현재 특별한 기획안이 확정되지는 않았고 각 단계마다 시행하고 있는 원격강의의 문제점들을 수집하고 있는 단계이다. - 원격강의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 통신 프로그램응용기술을 익히는 초기 과정이라 일반 강의를 준비할 때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리포트를 관리하고 학점을 매기는 과정상에 어려움이 있다. - 강의준비 외에 준비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가상대학은 원격수업의 수업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학사행정일 같은 대학규정이 필요하다. 학사행정을 진행시키기 위한 입시전형이나 학점이수, 학위수여 관련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큰 논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 대부분의 대학이 가상대학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대학의 준비가치가 있지 않나. = 모든 대학이 가상대학이 될 수 없고 가상대학이 대학의 전부라 될 수도

없다. 모든교육이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리라는 예상은 지나친 과잉이다. 가상대학은 단지 어떤 특정 과목이나 특정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교육방식일 뿐이지 모든 학생에게 가상대학에 입학하는 교육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 대학들이 가상대학 교육을 시행할 때,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 대학사회가 선후배관계나 공동체 동아리문화를 통해 사회생활 준비단계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인성을 닦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가상대학이 실현된다고 해서 이런 공동체 문화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우려이다.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의 교류도 하나의 대

안일 수 있다. 모니터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들이 문자라는 특징 때문에 내용의 진지함에 서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 가상대학, 원격수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학교와 교수, 학생에게 필요한 자원은. = 학교는 적당한 프로그램 개발과 응용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고 교수들은 수업자체에 이용가능한 기능들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원격강의라는 강의방식에 지친 소홀해 지지 말고 적극적인 참여도를 유지하며 멀티미디어 기능을 익혀 교재의 교환과 적절한 자료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진 기자**

짧은 소식

학교밖에서

전국대학 창작 연극제

대학 연극인들의 신선함과 패기가 어우러진 축제. 전국에서 참가한 27개팀중 1차 예비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5개팀의 본선 공연이 이뤄진다. 8일까지. 연극장에서. 721-5966

제 19회 서울 국제무용제

'무용계의 큰 잔치'. 국내 공식 참가단체 10개팀을 비롯, 모두 19개의 국내외의 단체가 참여해 현대무용·한국무용·발레 부문으로 나눠 공연을 벌인다. 일본의 '게이타케이 움직이는 현대무용단'과 스웨덴의 '안데르센 현대무용단' 등 2개의 해외무용단이 초청되었다. 자유참가팀은 '김은희 무용단'을 포함한 다섯팀. 자유참가팀 중 최우수 팀은 다음 해 무용제에서 예선을 거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 12일까지 문예회관에서. 1만원. 744-8066

피카소 미공개 작품전

20세기를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20세기를 대표하는 거장의 새로운 면을 살펴본다. 1965년 남프랑스 남에서의 소묘와 1970년부터 73년까지 그려낸 동화같은 드로잉, 그의 마지막 작품인 '앉아 있는 사람' 등이 전시된다. 16일까지 한국경제 신문사 신사옥 12층 특별전시장에서. 360-4785

호암 미로전

호암 미로는 피카소, 살바도르 달리와 더불어 스페인 현대 회화를 대표하는 화가. 다양한 재료를 통해 구현된 미로의 작품세계에서 초현실주의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1945년에서 1983년 사이에 제작된 브론즈 70점, 페인팅 45점, 드로잉 9점 등 총 1백 48점이 소개된다. 다음달 21일까지 금호미술관에서. 720-5114

연극학교 무료공개강좌

연기실습, 성악, 배우훈련, 제스처스, 영어연극, 연출·극작반이 일주일간 무료로 운영된다. 극단 '우리극장'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24일부터 29일까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되며 연출가 김홍성·유지철 배우 최혁주 등 7명이 강사로 나올 예정이다. 23일까지 접수마감.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시장 옆 극단 우리극장에서. 332-4116

매아리

선거

▲전대협 그리고 한총련5년 학생운동의 역사는 올해로 11년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역사의 한페이지를 접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라의 위기가 다가올때는 항상 나라의 안정을 생각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우리들의 선배들은 그렇게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나라의 위기가 다가오면서 학생운동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 선배들이 지켜왔던

학생운동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금 서울지역을 비롯해 각 지역의 대학가에선 학생선거 바람이 한창이다. 몇 년전처럼 치열한 경선선거가 아니라 겨우 명목만 유지하려고 한다. 학생화선선거뿐만이 아니다. 학우회 97대선예의 학생참여도도 마찬가지다. 저의든 타이든 예전의 대선에서 볼수 있었던 활기찬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그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바 없는 것이 한가지 있다. 바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각자 자기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다. ▲지난달 전국대학자연맹(이하 전대기련)에서 설문조사한 대학생들의 대선인식조사도도 살펴보면 이번대선은 정권교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한총련 주류세력의 공식적

선거운동은 전혀 하지않음에도 이같은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은 자생적 흐름으로 대세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다. ▲지금 학생운동은 벼랑 끝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잇단 한총련 간부들의 연행과 은둔생활을 하는 상황속에서 학생운동이 이제 대선이라는 큰 사안을 앞에 두고서 활기워 하고 있다. 대선후보자 지지여부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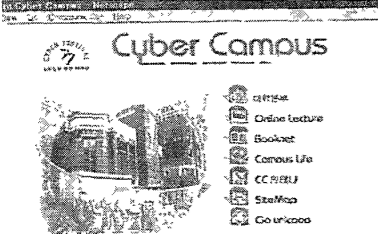
신한국당과같이 흥취한 모습으로 서로다른 주장을 내세우기에 앞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학생운동의 맥을 유지할 수 있다. 이제까지 어떻게 유지한 학생운동이 소리는 매아리로 남기보다 우리들 가슴속에 고동치는 매아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조진 사회부장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TEL: 2603491-2 / (0561) 7702057-8 FAX: 2791270 PC ID: dgpress

소나기

가상대학



△가상유치원, 가상초등학교, 가상중학교, 가상고등학교, 가상대학교...우린 가상 동창생
△가상대학의 교수로 빌게이츠를 초빙하자.
△사이버 대학은 어느 나라에 있는 대학?
△가상 대학원은 언제쯤 생길까?
△여긴 커트라인이 몇 점이에요?
△가상대학은 정원이 몇 명이지?
△인간만이 없는 대학, 심인심색의 대학.
△정성이 가상한 대학.
△가:가짜 상:상술의 대:대안없는 학:학교
△밤에도 새벽에도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가상대학에서는 반드시 학생자치공간을 확보하자.

△할머니: 어디 가니?
손녀: 가상대학이에요.
할머니: 한 밤중에 대학원 왜 가.
△밤 새지 말란 말이야.
△난 가상대학에서 엄마에게 대출을 부탁할 것이다.
△가상대학은 도강생들의 천국이 되지 않을까?
△가상대학이 자칭 가상대학으로 흐르지 않을까?
△그럼 가상대학생들도 M.I가나요?
△교과목가 간만에 가상한 일 했다.
△야간대학이 2부대면 가상대학은 3부대.
△여러분, 속지마십시오. 우리는 교수님이 필연에 직접 강의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마우스로 강의하는 가상대학을 반대합니다. -모범생 일동
△가상대학의 축제는 사이버 축제?
가상대학의 뒷풀이는 대화에서.
△가상대학 진짜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가상대학 수석은 분명히 빌게이츠!
△김영희는 가상대학, 하지만 친구없는 가상대학.
△가상대학이 생기기 제일 좋아할 사람? 한국통신직원
△야! 이제는 산타와 학교 안다녀도 된다!
△가상대학은 윈도우 95에서만 켜나?
△가치관을 상실한 대학
△김영희엔 멀게만 느껴지는 대학
△우리 학교 도서관도 가상대학이라면 가상대학

통신에 빠진 학생들
더불어 사는 미덕 필요

현대를 정보화시대라고 일컫는다. 매일 매일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정보들을 얼마만큼 소화하느냐에 따라 시대를 앞서갈지, 뒤쳐질지 결정된다. 정보를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이다. 이런 '컴팩'이라는 말도 옛날 얘기고 요즘은 '넷뱅'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다.
본교의 경우 각 단과대 실습실과 중앙도서관 1층로비에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어 누구나 손쉽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컴퓨터를 이용하려 중앙도서관에 가보면 사용자가 여간 만만치 않다. 항상 컴퓨터 빈자리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붐빈다.
학생들의 수에 비해 컴퓨터가 턱없이 모자란 탓도 있지만 시간가는줄 모르고 채팅을 하는 학생들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중요한 용무나 필요한 정보를 위해서 채팅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자기 혼자만의 컴퓨터가 아닌 모든 학생들을 위한 컴퓨터이므로 급하게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학우를 한번쯤 생각할지 바란다.
정중훈(공과대 전자정보공학부)

소중한 한표 행사로
진정한 자유 썩들 터

'자유'라는 이름을 안고 대학에 들어온 지 벌써 7개월째 접어든다. 지난 기간을 되돌아보면 난 '자유'를 잘못 해석해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포기했는지 스스로 반성해 본다.
며칠 전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어느 단과대 학생회실을 지나던 적이 있었다. 그때 우연히 문틈으로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저희는 70%의 투표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0%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나오며 많은 선거를 해왔지만 거의 100%에 가까운 투표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고등학교까지의 투표는 거의 강제적이어서 피했지만 지금 우리 정말로 '자유(?)'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그때 문득 나 또한 단과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기억했다.
'투표하지 않는 것도 나의 자유'라고 생각하며 부심과 투표할 열을 지녔던 내 자신이 지금 너무 부끄럽다.
지금까지 '자유'의 뜻을 왜곡하여 생각해 온 나 자신을 스스로 반성해 보며 며칠 후에 있을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에서는 잃어버린 권리를 다시 찾아 보련다. 귀중한 한 표를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포기하는 행위일 것이다.
김진희(사과대 사회과학계열)



이국환 (사과대 신문방송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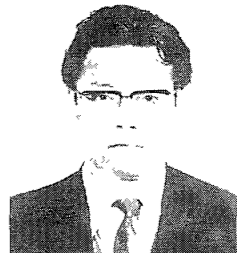
시험 부담감 가중 우려
일률적인 시험기간제 반대

몇몇 타대학에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일정기간동안 시험을 치른다고 한다. 하지만 대학에서 시험기간제를 만들어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하루에 몇과목씩 치러야 할 시험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하루에 한 과목이나 두 과목 수업이 있는 경우 부담이 다소 적을 수 있지만, 하루에 3~4과목 수업이 있을 때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많은 학생들이 5일 중 하루 정도 수업이 없게 시간표를 짜기 때문에 하루에 3~4과목이나 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일정기간을 시험기간으로 만든다면 짧은 시간내에 시험을 끝내 학생들 마음은 일찍 휴가분해될 수 있고 수업진행도 원활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험기간이 따로 정해진다면 하루에 3~4과목 시험을 치러야 하는 큰 부담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대학사회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자율성'이다. 특정기간을 시험기간으로 정하지 않는 것 역시 자율성 보장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 한다.
심미선(문과대 영어영문학과)

비대위 운동사미 행정
이제는 그만할 때

요즘 비상대책위원회의 운동사미 행정을 볼 수 있다.
몇 주 전에 학교의 교문에 설치된 택시 진입금지 게시판을 보았다. 그와 더불어 승승차를 함께 타자는 내용의 캠페인도 여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러한 움직임이 단지 그 때의 보여주기 행사라는 느낌이 든다. 요즘 학교를 다니다보면 그러한 운동을 하기 전후의 달라진 점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분별하게 교내를 진입하는 택시들을 볼 때 분명히 택시 승차장이라는 게시판을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하는 버스들. 그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답답하는 학생들. 이러한 모습들을 볼때면 과연 비대위에서 개선하자는 취지가 얼마나 실행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얼마나 이를 따르려고 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차라리 하지말았으면 하는 회의까지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언제까지나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꾸 미루다보면 결국엔 커다란 어려움에 처할게 분명하다. 그래서 필자는 비대위의 의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보다 좋은 환경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박성철(법정대 법정학부)

동문카럼
공로



박태섭 (봉교87졸·미래학원 강사)

소중한 책 한권으로
마음의 양식 쌓을 시기

좋은 책을 소장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큰 기쁨이다. 더구나 희귀본이라면 그 기쁨은 배가 될 것이다.
서가에 꽂혀 있는 책은 그 책의 장보다도 몇 배 아나 몇 십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어떤 항보다도 좋은 종이냄새가 있고 어떤 음식보다도 맛난 지식이 거기에 담겨 있다. 책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힘이요, 자산이다.
정보의 바다 인터넷은 생산, 가공, 전달이 쉽다. 책을 비하면 가공할만한 속도로 전파된다. 속도가 빠르면만큼 자주 갱신되고 업그레이드된다. 그러나 제어부리 통신이 발달해도 자본주의의 속성상 고급정보는 유료일 수 밖에 없다. 인터넷 정보는 대개 상업적이다. 그러나 한번 인쇄된 책은 세월따라 변하지는 않는다. 내가 보았던 지식은 다시 펼쳐보고 싶을 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책은 오래될수록 좋다. 고전은 더욱 그렇다. 책은 언제나 나와 대화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책은 저자의 이름이 있고 인격이 있다. 책은 나의 맘과 손때가 묻어 있다.
정신문화는 최소한 지금까지 언어와 책을 매개로 전승되어 왔다. 때문에 책은 국보가 된다. 고급상징에문이나 훈민정음 원본은 수천년이 지나도 우리의 국보일 것이다. 서양 사람들은 서재의 책들을 당연히 중요한 재산으로 여기며 자손에게 물려줄 유산 목록에 올린다. 좋은 책을 하나둘 모아 갈 가치가 있다. 책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물론 학생시절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서량은 너무 부족하다. 지적 열망실조 상태라고나 할까. 출판계는 영세하고 공공도서관들의 장서보유 현황은 비참하기 그지없다. 심지어 해방 이후 각급학교의 교과서조차 보관되어 있지 않다. 기성 세대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조차 잊어 먹고 있는 것이다.
모든 전자정보는 반드시 전기가 있어야만 모니터상에 재생된다. 만약 핵전쟁이나 크나큰 천재지변으로 현대문명이 멸망한다면 전자기술 역시 인류의 멸망과 함께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책은 핵전쟁 뒤에도 살아남을 지 모를 돌연변이 인간들이 인류의 후예로서 다시 문명을 건축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월터 릴러가 '데이브워츠'를 위한 찬가'에서 그러보았던 이런 미래가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동약광장

목격
축하합니다

△농·연의 든든한 상호형, 생일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형의 청춘사업이 잘 되시길 바랄게요. -D.C
△길용이형 군대 면제 받으신거 축하드립니다. 그 만큼의 시간을 뜻있게 쓰시길 바랍니다.
△태경이형, 유희누나 생일 많이 축하해요. -동복들
△재현이와 명선의이 예쁜 앞날을 바랍니다. -실-
△건준과92 고정재 이동여 생일 축하합니다. -92일동
△경상학부 학우중 경영학과 전공을 선택한 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탁월한 선택. -경영(야) 선배일동
△경향형정 35기 후배들의 승단을 축하합니다. -34기 일동
△경영학부 queen가 김은지 생신 11월 2일. -경영학부 queen가 얼마 N.Y
△경영학부97 조양, m. g. 군 CC원 거 축하한다. -경영학부일동

수고하셨습니다

△NEO AD 가을 소풍 갔다오느라 수고했습니다. -광
△인천대건고 동문회 준비하시는 분들 수고합니다. -41회 졸업생
△경·통(야) 재용아 학생회일 수고한다. -아간 대장
△광과교과 광고제 준비하느라 수고합니다. -모씨
알립니다
△농·연이 11월 7일 인터넷에서 일일호프를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명덕 고등학교도 동문회 합니다. -어느 삼심현 97
△11월8일 토요일 6시에 동곡호프에서 길 카니발합니다.
△문계구를 11월20, 21일 공연 열심히 준비합니다. -강부장
그리고...
△신인방과 학술제 준비하느라 힘들죠? 그래도 Fighting! 기차단
△승룡아. 요즘 힘없어 보이는구나.

힘줄 내고, 그리고 너는 잘난 놈이란거 알지!!
△REDS장 열심히 해라. 두고 보겠다. -REDS 97
△용재형의 취업을 버리며! 힘내세요 -포드97일동
△간지현의 빠른 쾌유를... -enni·동기-
△지현아 486012012 -재수가
안녕
축하합니다
△10월 28일 편경(야) 아우토반 야구부 회원들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해요.
-관영(야) 일동
△하나님 10주년 공연 축하합니다.
남녘방 북녘하늘도 멋진 공연 기대할게요. 사랑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
△국제관계 95 은애와 최수연의 생일이 이번 달 이라는데 마니마니 축하해 주세요. -골
△민정 생일 축하해!! 생일이 11월 6일이라... -오빠가 민
△불교 이동학과 학술동아리 '마야' 발표회를 축하합니다. 준비한

블롱과 '마야'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네요. -94 여진
△지은(수교94)아 이대 대학원 붙은거 축하해!!
△11월 4·5·6일 또다르 이야기 전시회를 축하해요. -이쁜이가
△한의학의 영원한 등불 우식선배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석장 올빼미 일동
△성희, 신영아 2백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운방골 현정
△국가고시 합격한 안전공 학우님들 모두 축하드려요. -안전공학우
△11월 3일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한 보경의 생일입니다. 많이 축하해. -오빠
△11월 21일 2백일 축하해. 태수, 진영 사랑해. -친구들이
△한의학의 영원한 등불 우식선배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광들이
△는 푸른친구 연속이의 20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연속아 사랑해. 너의 왕자 훈 △사랑하는 나의(뽕글이) 정애야! 너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빅경희
△주연아 10월 28일 너와 오빠의 7백일을 기념하며, 정말 축하해. -종래와 리이도
△사랑하는 나의 첫 영숙아 11월 5일

너의 생일 정말 축하해. 너의 탄력 예쁜이(?)
△국·경 호성선배 취업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며. -예쁜 뽕수(?)
수고하셨습니다
△화학과 동행(학술부장) 수고 많았다. 그리고 여러분 학술제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터프키이
△화학과 자연과학부 1·2학년들이 화학과 학술제 한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모토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대들이기를 바랍니다. -캡시맨
△하·나·뽕 공연 준비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순란·재준선배 마지막 공연 정말 멋있었어요. 사랑해요. -법정 96
그리고...
△고(故) 김선복 학우의 명복을 빕니다. 저 세상에서 부디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빌며 비록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도 다 같이 명복을 빌어 주셨으면 합니다. -화정선우부 일동

다양한 학생·문화관 그림 식당 차림표

월	하이리이스(1200) 두부김치(1200) 복어국(1500)
화	소고기탕수육(1500) 편장찌개(1300) 김치찌개(1500)
수	모듬볶음밥(1200) 간짜리백반(1200) 들깨미역국(1500)
목	오징어불고기(1500) 버섯달걀(1300) 닭가슴살(1500)
금	비빔밥(1200) 후랑크케첩볶음(1200) 이육국(1500)
토	오므라이스(1500)

동곡관 교직원·학생식당 차림표

월	복어국(2800) 김치술밥(2800) 비후개스(1500) 찜치김치찌개(1200) 캐롤리온(3000) 불고기백반(3200) 케렌타이스(1200) 설렁탕(1300)
화	건설우아육국(2800) 정식(3400) 순대야채볶음(1300) 소고기국밥(1300)
수	부대찌개(3000) 고깃배반(3000) 고구마비빔밥(1300) 찜풍국밥(1300)
목	달걀탕(3000) 오징어볶음(3000)
금	돈갈비찜(1500) 군대국밥(1200)